

수출 둔화·내수 부진·가계 부실·美 금융위기 '4대 악재'

한국경제 '산 넘어 산'

9월 위기설 넘기나 했더니 다시 불안 조짐
美·日 등 선진국 경기 침체도 악영향 우려

우리 경제가 '9월 위기설'에서는 벗어났으나 앞길은 '침체산중'이다. 단순한 금융시장 불안차원을 넘어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흔들 악재들도 도사리고 있다.

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제는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본격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파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인자금 이탈을 초래하고 이는 우리의 주식·외환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내수·물가 불안하다=국내 경제여건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경기하강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정부의 노력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가계부채·PF대출 시한폭탄=가계와 중소기업은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622조9천억원으로, 가구당 4천만원으로 계산됐다. 가계부채는 고금리와 결합해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면서 경기를 끌어내린다.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가세할 경우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 우려가 많다.



'이든발효생식온기' 출시 발효생식 전문업체인 (주)이든네이처는 발아주논이콩 및 녹황색 채소를 발효, 자연건조해 만든 '이든발효생식환'과 발아곡물류 및 해조류 등 48종의 국내산 원료를 발효해 만든 '이든발효생식온기' 등을 14일 출시했다. /연합뉴스

대부업체 피해 갈수록 확산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이 낮아 제도를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42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천62건에 달했다. 연 49%인 법정 상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징수와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대출금리 내렸다

국민은행 고정금리 0.20%p ↓ ... 5개월만에 최대 폭
타은행들도 인하 동참 ... 변동금리도 오름세 진정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변동금리형 주택대출금리도 3주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출금리 오름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다.

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번 주 3년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연 7.74~9.24%로 지난 주에 비해 0.2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4월14일 0.21%포인트 떨어진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금리는 7.97~8.67%로 지난 주 초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12일 현재 금리가 7.80~9.40%로 지난 주 초에 비해 0.17%포인트 하락했고 하나은행은 12일 현재 8.08~9.28%로 지난 주 초보다 0.16%포인트 떨어졌다.

행의 이번 주 초 금리는 6.69~7.99%로 4주째 같은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6.59~8.19%로 지난 달 19일 이후 보합이다. <대출금리 큰 폭 하락은 어려울 듯 = 고정금리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3년 물 AAA 등급 은행채 금리는 지난 달 25일 7.29%까지 치솟았으나 이달 11일 현재 6.98%로 내려갔다.

Table with 3 columns: Rank, 2nd Quarter Number of Applicants, Number of Applicants. Lists various ranks and applicant counts.

Table with 3 columns: Rank, Number of Applicants, Number of Applicants. Lists various ranks and applicant counts.

국내 최저타르 '더원 0.1' KT&G 전남본부, 출시 KT&G 전남본부는 국내 최초로 타르 0.1mg(니코틴 0.01mg)의 국내 최저타르 제품 '더원 0.1'(사진)을 개발, 지난 3일부터 전국에 출시했다.

성능이 우수한 '대나무 활성숯 3중 필터' 신 기술을 적용했으며, 낮은 타르임에도 도화로운 담배 고유의 풍미를 최대한 구현해 목 자극이 적고 순한 맛이 특징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 '10월이 고비' 손실 '눈덩이' 대량 환매 불안감. 최근 해외주식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펀드잔고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10월이 펀드 환매의 1차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0대 부자 3년새 30% 바뀌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2조7천억 최고. 2005년 이후 주식시장이 성장하고 재계 2·3세들의 증여 및 상속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100대 부자 중 30% 이상이 바뀌는 등 부자 판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Gyojo-i' (구조이) real estate company,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details.